스카이데일리
SkyeDaily
제862호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단기 4355년 음력 5월 1일 癸未
skyedaily.com
구독·배달문의 TEL 02-522-6598 / H.P 010-5953-6595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금융그룹

# 반도체 ‘안보자산’ 삼아 韓美 재결속

**이슈포커스**

### 바이든 방한 이후

## IPEF 한국 참여, 中 긴장
## 한미 경제·기술 동맹 격상
## ‘中 포위’ 물밑 합의 분석도

**[특별취재팀=오주한 부장|노태하·김나윤 기자]** ‘세계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먼저 방한해 전세계 이목이 쏠린 바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통상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을 선(先)방문하던 관례를 깨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서울을 찾았다. 두 나라 정상은 한미 관계를 기존 안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기술동맹으로 격상시킨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또한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한국 참여도 확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파격적 행보와 한미동맹 격상 등을 두고 국제사회는 배경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국 견제 성격을 지닌 IPEF에 한국 참여를 두고 한미가 대중(對中) 포위망 형성에 사실상 물밑 합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례적 선(先) 방한 후 찾은 곳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20일 오후 꼬리날개에 성조기가 붙은 항공기 한 대가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했다. 바이든 대통령 일행이 탑승한 미 대통령 전용 공군기 ‘에어포스원(Air force one)’이었다. 같은 시간대에 ‘심판의 날 항공기(Doomsday plane)’로 일컬어지는 E-4B 핵공중지휘통제기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모습을 드러냈다. E-4B는 중국 등과 핵전쟁 발발 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략폭격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잠수함 등 미국의 모든 핵전력 부대를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기사 16·17면〉

윤 대통령 방미에 앞서 먼저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서 내려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었다. 윤 대통령과 함께 공장 내부를 둘러본 바이든 대통령은 방명록 대신 반도체산업 상징인 웨이퍼에 서명을 남겼다. 》16면에 계속

**송강호 남우주연상… 한국영화, 칸 역사 새로 썼다** 배우 송강호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영화 ‘브로커’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뒤 상장과 상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은 국내 최초이며, ‘밀양’으로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전도연에 이어 15년 만의 쾌거다. 특히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도 이날 ‘취화선(2002년)’의 임권택 감독에 이어 두 번째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해 한국 영화계가 겹경사를 맞았다. 〈관련기사 24면〉 AP/뉴시스

# 하락장엔 고배당주 챙겨라

## 고금리·인플레에 증시 휘청
## 실적 순항 주일수록 수익 든든

미국 ‘빅스텝’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국내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로 나서자 코스피 지수는 2500선까지 떨어졌다. 물가상승률도 4%를 넘어 당분간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분간 주가 반등 요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주목했다. 순이익 등 실적까지 겸비한 배당주에 투자하라는 조언이다. 배당수익률은 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로 주주들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다. 종목별로 투자하는 게 두렵다면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것도 변동장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기대 배당수익률 5% 이상 종목 68개**

KB증권에 따르면 2021년 주당배당금(DPS)과 비교해 올해 배당수익률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통주 종목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총 68개로 집계됐다. 전체 상장기업의 3% 수준이다. 업종으로 보면 68개 중 32개가 금융주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금융업 밖으로도 선택지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우선주를 포함해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금호석유우(8.89%)로 드러났다. 이어 S-Oil우(8.68%), 대신증권우(8.62%), 금호건설(8.61%), BNK금융지주(8.49%), 대신증권2우B(8.33%), 씨앤투스성진(8.32%), DGB금융지주(8.27%) 등의 순서였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주식, 채권 등의 부진한 수익률은 안정된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면서 “주식에서는 배당주를 꼽을 수 있는데 최근 배당주에 대한 선택지가 금융업종 밖으로도 넓어졌다. 실적이 순항 중인 고배당주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고배당주 중에서도 순이익이 축소되지 않는 종목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조언이 나온다. 배당수익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순이익이 줄어들면 실질적인 배당금액 자체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의 경우 지난해 배당수익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었지만 올해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거두면서 배당수익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승준 기자 sjyoon@ 》3면에 계속

# 윤종원 국조실장직 결국 고사

## 권성동 사퇴 압박에 백기
## 국정 무게추 黨 우세 전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를 요구해온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윤석열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 자리를 결국 고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정 간 신경전이 일단락된 가운데 향후 당정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9일 정치권에 의하면 윤 행장은 전날 언론에 “밤새 고민했다. 여기서 물러나는 게 순리인 것 같다”며 “새 정부 출범 초창기인데 제가 부담을 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의를 표했다.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국무조정실장 자리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다소 이상한 모양새의 발표가 이어졌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리께 전화 드리진 않았다. 기사가 나가는 걸 보시면 알게 되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행장은 한 총리 추천으로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문재인정부 경제수석 출신인 윤 행장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당초 25~26일 임명이 유력시됐다. 그러나 윤 행장이 소득주도성장 등을 주도한 점이 알려지고 전 정부 경제정책 실패 책임 논란까지 불거지자 여당 내에서 비토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한 총리는 적임자라며 두둔했지만 권 원내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천명하고 나서면서 자칫 여권 내부의 인사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인 바 있다. 결국 복잡한 구도 속에서 국무조정실장 후보로 거명되던 당사자인 윤 행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상황이 교통정리됐다는 얘기다.

권 원내대표는 28일 경기 남양주에서 6·1 지방선거 지원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윤 행장이 인사 대상자로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 검증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줘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조금 더 빠른 시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여론을 직시하고 물러나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총리도 사실상 여당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그는 28일 언론에 “윤 행장 본인이 논의 전개 과정에서 부담을 느껴 내린 결정이니 존중했으면 한다. (인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새 인사를 생각해볼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오주한 기자 jhoh@ 》5면에 계속

# ICT 산업인력 양성 ‘후진’

## 인력 비중 5년간 하락세
## 중소기업 인력난 더 커져

우리나라 경제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인력 수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29일 발표한 ‘2021 ICT 인력 동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전체 산업인력 대비 ICT 인력 비율이 4.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ICT 산업 인력 비율은 2015년 4.9%를 기록한 이후 2016년 4.8%, 2017~2018년 4.7%, 2019년 4.5% 등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업 종사자는 ‘ICT 산업인력’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0년 전체 산업인력 인원은 총 2483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한 데에 비해 ICT 산업인력 인원은 103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불과 0.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인력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산업 인력은 연평균 3.5% 증가했다. 반면에 ICT 산업에서는 0.4% 증가에 그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정보통신기술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9% 증가한 199억4000만달러로 역대 4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 》7면에 계속